

〈Brief Report〉

부부갈등 사례에 대한 인지행동적 모델의 적용

김진숙[†]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권석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부부문제에 대한 인지행동적 모델을 갈등이 심한 국내 부부 사례에 적용하여 모델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갈등이 악화되어 별거에 이른 국내의 한 부부 사례를 중심으로 인지행동적 척도로 부부 문제를 평가하고 인지행동적 모델에 맞추어 부부사건의 발생과 함께 부부 문제가 악순환을 겪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인지행동적 척도 상에서 해당 부부는 일반 참여자 부부와 비교하여 부정적 부부 사건의 개수가 매우 많았고 부부신념이 상당히 불일치하였으며 특히 아내의 부정적 부부지각 점수가 매우 높았다. 또한 부정적 부부감정 점수도 높게 나타났으며 서로 간에 주고받는 부정적 행동은 일반 참여자 부부에 비해 약간 많지만 긍정적 행동은 매우 적게 나타났다. 인지행동적 요인을 측정하는 척도를 통해 부부 사례를 평가하고 모델에 적용해본 결과 국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적 모델이 부부문제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임상적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부문제, 부부신념 불일치, 부부지각, 부부 불만족, 인지행동적 모델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진숙 /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0
Tel : 02-2128-3064 / Fax : 02-2128-3111 / E-mail : jskim@sdu.ac.kr

부부는 한 가정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추적인 구성요소로서 원만한 부부관계는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부부문제란 ‘결혼한 두 사람 즉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적응적인 인간관계의 문제’로서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부부간의 갈등과 불화를 심화시키며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자녀를 비롯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김윤희, 황순택, 2003; 노은여, 권정혜, 1997; Gottman & Levenson, 1992; Jacobson, Holtzworth-Munroe, & Schmalting, 1989; O’Leary, Malone, & Tyree, 1994). 인지행동적 이론은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해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부부문제와 관련된 요인을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준다는 장점으로 인해 부부치료 분야에서 주요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Dattilio, 1993). 인지행동적 관점에서 부부문제는 기본적으로 환경적인 사건에서 촉발된다. 즉, 부정적인 부부 생활사건이 많을수록 부부문제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부부관계의 사건만으로 부부의 불만족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인지도식의 측면으로서 부부관계에 대한 신념, 배우자에 대한 신념, 부부관계에서의 상호 역할에 대한 신념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부부신념은 환경적인 사건이 부부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한다. 또한 인지과정으로서 상대 배우자나 배우자의 행동 및 특정 부부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지에 해당하는 부부관계에 대한 지각과 사고 요인은 부부사건이 부부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 부부 불만족도가 높은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은 평가절하하고 부정적인 행동은 배

우자의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으로 귀인하는 등의 지각 편파가 있다는 선행연구(Baucom & Epstein, 1990; Bradbury & Fincham, 1990; Bradbury & Fincham, 1991; Bradbury, Fincham, Beach, & Nelson, 1996)의 결과처럼 이러한 지각과정에서의 해석과 평가 내용은 부부의 환경적 사건이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합적으로 볼 때 부정적 부부사건은 부부신념과 상호작용하여 부부 불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부부지각은 이 과정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부정적인 부부사건이 촉발되면서 활성화된 부부신념의 인지도식 내용은 부부지각의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지각 내용과 일치하는 정서적 경험을 유발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서적 반응과 행동적 반응을 상대 배우자에게 나타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인지행동적 모델의 적절성을 국내 부부를 대상으로 검증한 바 있다(김진숙, 2007).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한 인지행동적 모델을 개별 부부 사례에 적용하여 접근 방식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부 갈등이 있는 사례를 심층 면접하여 부부문제에 대한 인지행동적 모델이 구체적인 사례에서 부부문제를 얼마나 잘 설명해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양적인 연구방법과 질적인 연구방법이 기본적으로 다른 철학적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지만(Hanson, Crewell, Clark, Petska & Creswell, 2005) 양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얻은 대표성이나 일반화에 대한 발견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깊이 있게 확장하는 혼합된 연구방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Reichardt & Cook, 1979). Mertens (2003)와 Punch(1998)는 양적인 자료로부터 얻어진 측정적인 결과에 더해 질적인 자료의 세

부적인 특정 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혼합적인 연구 방법은 연구문제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부부문제에 대한 인지행동적 모델의 검증을 위해 양적인 연구 방법으로 얻어진 수렴적인 결과를 질적인 자료에 적용하여 인지행동적 모델의 적절성을 세부적으로 보다 잘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 법

참여자

결혼 15년 차이며 현재 별거 중인 부부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 부부는 오랫동안 고부갈등으로 인한 부부 불화가 있었으며 최근 아내의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갈등이 증폭되어 상담기관을 찾았다. 남편이 42세, 아내가 38세이며 초등학교생인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사례 부부의 인지행동적 척도 상의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일반 지역사회 표본 112쌍의 부부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들 부부의 연령 평균은 남자가 40.8세, 여자가 38.6세였으며 평균 결혼기간은 11.6년, 평균 자녀수는 1.6명, 가계 총 월 소득 평균은 235.5만원이었다.

측정도구

부부신념 척도(Marital Beliefs Scale: MBS)
김진숙과 권석만(2009a)이 개발한 30문항의 부부신념 척도는 7점 척도로서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요인별 .83과 .78이었다.

부부지각 척도(Marital Perceptions Scale: MPS)

본 연구자가 개발한 총 48문항의 척도이며 요인별 내적 일관성 계수(Chronbach's α)는 .74에서 .94의 범위에 속했고 각 요인과 부부 불만족 점수와의 상관은 .61에서 .80 사이에 속했다.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General Dissatisfaction Scale: GDS)

Snyder(1997)의 결혼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를 번안, 수정하여 제작된(권정혜와 채규만(1999)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Korean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의 하위 척도 중 하나이다. 결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이나 분위기를 말해 주는 지표로 적절하며(권정혜, 채규만, 2002)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한국판 부부감정 척도(Korean Marital Feeling Inventory: K-MFI)

O'Leary와 Arias(1983)의 17문항과 7점 척도로 구성된 긍정 감정 질문지(Positive Feeling Questionnaire)를 번안하여 개발한 한국판 부부감정 척도(김진숙, 권석만, 2009b)로서 부부관계에서 자신 및 배우자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인 긍정적 감정 수준을 평가한다. 부부치료 효과 측정에 유용한 것으로 제안되었으며(O'Leary 등, 1983) 내적 일관성 계수(Chronbach's α)는 .97이었다.

한국판 부부행동 척도(Korean Marital Behaviors Scale: K-MBHS)

Broderick(1981)이 제작한 부부 일일활동 점검표(Daily Checklist of Marital Activities: DCMA)를 본 연구자가 수정, 번안하여 총 35문항의

한국판 부부행동 척도를 개발하였다. 한국판 부부행동 척도는 회고적으로 ‘최근 두 달 동안 해당 행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긍정/부정적 부부행동 요인의 내적 일관성 계수(Chronbach's α)는 각각 .91과 .86이었다.

주요 부부 생활사건 질문지(Major Marital Life Events Questionnaire: MMLEQ)

경제, 건강, 죽음, 원 가족 문제, 배우자 가족문제, 임신과 출산, 외도, 직업, 부부폭력, 성기능 곤란, 배우자의 가출이나 별거, 동거형태 변화, 자녀문제 등 부부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 28개 항목의 부부 사건에 대해 최근 6개월 동안의 발생 여부를 기록하도록 한 질문지로서 본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질문지의 총점은 부정적이거나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생활사건이 일어난 개수에 해당한다.

절차

심층 면접의 첫 회에 간단하게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측정도구를 남편용과 아내용으로 구분하여 남편과 아내에게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남편과 아내를 각각 총 4회 만나서 심층 면담을 하였으며 4회 중 1회는 남편과 아내를 동시에 면담하였고, 면담내용은 녹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분석

분석 1에서는 남편용과 아내용의 인지행동적 평가도구 및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 점수를 구하여 남편과 아내의 점수를 비교하고

해당 부부와 일반 부부 평균 점수를 비교하였다. 분석 2에서는 상담 내용을 통해 드러난 해당 부부의 갈등내용에 부부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인지행동적 모형을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사례 개요

결혼 초 시가에서 살림을 시작하게 된 아내는 시어머니가 까다롭고 비위 맞추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며 남편이 그 사이에서 적절하게 조정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남편이 아내의 고충을 들어주기보다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종종 부부 싸움을 하였는데 2년 여 전 남편의 사업 부도와 함께 아내가 자궁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아내의 억눌려있던 분노가 표출되었다. 연애시절에는 남편의 따뜻함에 그리고 아내가 만만느리감이라는 생각에 서로 호감을 가졌다고 한다. 남편은 집안의 종손으로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자랐다고 한다. 며느리가 보기에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뜻대로 안되면 자주 기질을 하였다고 한다. 아내는 일찍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 가장 역할을 하는 엄격한 큰 오빠, 이기적인 언니 사이에서 힘들게 일하는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고 한다. 현재 이 부부는 한 자녀씩을 데리고 별거 중인데 자녀를 매개로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부부의 개인적인 정보 보호를 위해 자세한 인적사항의 언급은 생략하거나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결 과

분석 1: 인지행동적 척도 상의 점수로 본 부부문제 이해

인지행동적 모델의 주요한 변인들을 측정하는 척도에서 이 부부의 점수를 일반 지역사회 표본의 부부들에게서 얻은 점수와 비교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비교되는 지역사회 표본을 편의상 일반 참여자라 칭하였다.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째, 일반 부부 참여자의 주요 부부 생활사건은 평균 1.4개인데 비해 이 부부는 아내가 9개, 남편이 6개로서 이 부부의 부부관계를 둘러싼 스트레스 사건

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부부 사이의 생활 사건임에도 남편과 아내의 기록 개수가 동일하지 않은 것은 배우자에 대한 관찰이나 배우자 행동에 대한 해석 여하에 따라 사건의 유무를 서로 다르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갈등이 많은 부부들에서 사건 발생의 회상시 불일치가 더 크다는 연구(Baucom 등, 1990) 결과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둘째, 이 부부의 부부신념 불일치 점수는 일반 참여자의 상위 2 표준편차 범위에 해당할 만큼 상당한 불일치를 보여준다. 응답 내용을 살펴볼 때 남편보다 아내가 더 전통적인 부부

표 1. 인지행동 모델의 변인들에서 사례 부부의 점수

	부부 점수		일반 참여자 평균	
	남편	아내	남편	아내
전반적 부부 불만족 척도	78	99	39.2(12.6)	45.7(15.3) ^a
주요 부부 생활사건 질문지	6	9	1.4(1.4)	1.4(1.5)
부부신념 척도	108	122	128.5(17.3)	121.2(13.4)
전통적 부부신념 요인	44	62	64.2(8.2)	57.0(8.2)
현대적 부부신념 요인	64	60	62.3(5.4)	64.2(5.4)
부부신념 불일치 점수	59	59	42.1(10.7)	42.1(10.7)
전통적 부부신념 불일치	44	44	27.3(64.2)	27.3(64.2)
현대적 부부신념 불일치	16	16	14.8(62.3)	14.8(64.2)
부부지각 척도	67	125	64.2(17.2)	70.1(23.5)
1. 관여-불균형 지각	18	38	17.8(5.7)	21.4(9.0)
2. 애정-불신 지각	22	18	13.1(5.2)	13.9(6.4)
3. 종교-불화 지각	4	4	4.2(1.0)	4.3(1.2)
4. 배우자-무능 지각	5	15	5.5(1.4)	5.8(2.0)
5. 독선-비 존중 지각	28	50	23.6(7.3)	24.7(8.7)
부부감정 척도	66	46	100.5(13.0)	95.3(15.4)
부부행동 척도				
긍정 행동	45	36	59.6(13.4)	54.6(13.9)
부정 행동	25	28	24.4(6.6)	25.3(7.2)

^a ()안은 표준편차

역할을 지지하고 가부장적인 위계질서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남편의 낮은 해당 점수는 전통적인 부부 상에서 남편의 유연함이거나 사회적 선의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부부지각 척도에서 볼 때 남편은 평균 범위에 머물러 있지만 아내는 일반 참여자에 비해 매우 극단적인 부정적 지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위 요인에서 특히 ‘관여-불균형 지각’ 요인과 ‘독선-비존중 지각’ 요인 및 ‘배우자-무능 지각’ 요인에서 특히 부정적 지각이 심하였다. 문항 구성에 따른 하위 생활영역 별로는 ‘경제 문제’,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적 의사소통’, ‘배우자 가족’ 영역에서 아내의 부정적 부부지각이 심했다. 반면에 남편은 ‘애정-불신 지각’ 요인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부부지각 총점은 평균 범위 내에 있으며 현재의 부부관계에서의 부정적 지각이 크지 않다. 하위 생활 영역 상에서는 ‘자녀양육 문제’, ‘애정표현’ 영역 및 ‘정서적 의사소통’ 영역에서 부정적 지각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부부감정 척도 상에서 부부의 점수를 비교하면 ‘일반적 부정적 감정’은 아내와 남편 모두 상당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신체적, 행동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감정’에서도 아내는 극단적인 부정적 감정, 남편 역시 상대적으로는 덜하지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현재, 이 부부는 자신의 부부관계 및 상대 배우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남편의 경우 부정적 지각에서 그리 높지 않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부정적 감정에서는 상당히 극단적인 양상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다섯째, 부부행동 척도 상에서 이 부부는 서로에게 부정적인 행동을 심하게 나타내지 않지만 긍정적인 행동은 다

른 부부들보다 훨씬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 부부의 부부 불만족도는 매우 극단적인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남편보다 아내의 불만족 점수가 매우 높고 결혼생활의 심각한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나는 아내를(남편을) 몹시 떠나고 싶다’의 5점 척도 상의 문항에 남편은 ‘그렇지 않다’의 1점에, 아내는 ‘상당히 그렇다’의 4점에 해당하는 응답을 하고 있어 남편은 아내와 달리 관계 회복에 대한 바람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 2: 촉발사건을 중심으로 인지행동적 모델에서 본 부부문제의 이해

부부의 촉발사건을 인지행동적 모델을 통해 알기 쉽게 제시하고자 그림 1로 표현하였다. 부부 면담 중 나타난 최근의 부정적 부부사건의 촉발과 그 전개과정에서 어떻게 갈등이 악화되고 부부관계의 악순환이 유지되는지를 부부사건, 부부신념의 불일치, 부부지각, 부부 감정과 행동을 통해 살펴보았다. 지면 제약 상 그림의 괄호 안에 제시된 약자를 사용하였으며 남편과 아내는 각각 h와 w로 표시하였다. 촉발 생활사건에서 시작된 사건의 전개를 E_1 , E_2 , E_3 로 표시하여 그 과정을 아래에 제시하였다.

E_1 : 아내가 손가락을 심하게 다쳐 병원 입원. ‘부모님 눈치도 있는데 꼭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느냐’고 묻는 남편의 전화. 아내가 남편에게 ‘다른 환자 듣는데 그런 전화하니 곤란했다. 가려서 해 달라’고 주문.

B_{1-h} : ‘가족은 부모님이 근본이다.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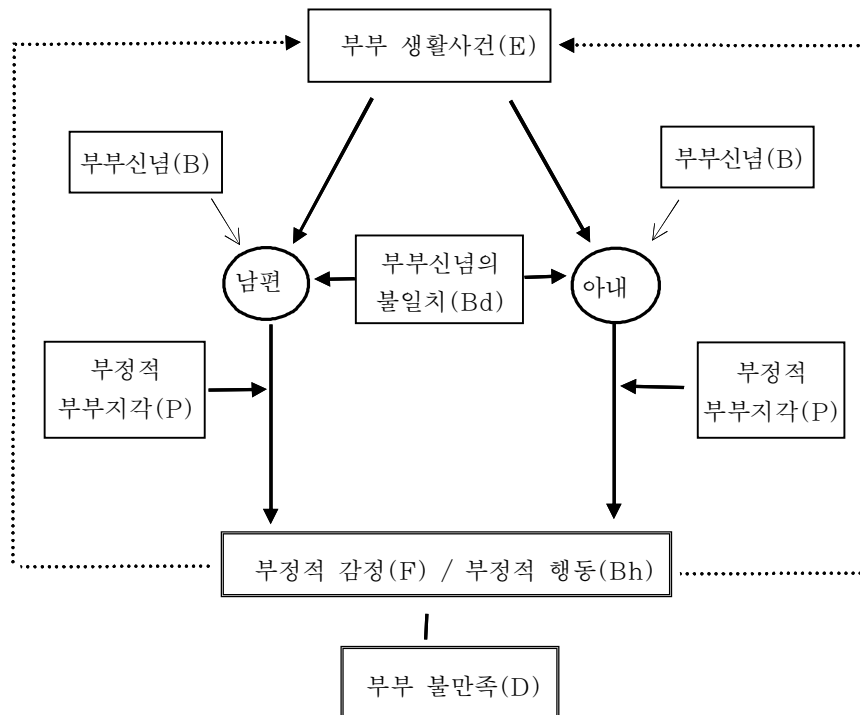


그림 1. 부부문제에 대한 인지행동적 모델

다, ‘가족은 죽으나 사나 같이 한다’, ‘아내가 우리 부모님께 잘해야만 나도 아내에게 잘 해 줄 수 있다.’

B_{1-w} : ‘가족은 원 가족을 제외한 남편과 부인의 두 기둥이 중심이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려면 원 가족을 멀리해야만 한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정의 울타리를 책임져야 하고 아내는 알뜰하게 살림에 전념해야 한다.’

P_{1-h} : ‘매사를 꼬아서 보는구만’, ‘우리 부모님이 자기 생각해주는 것은 모르고 거리를 두는 구나’, ‘왜 항상 저런 식으로 볼까.’

P_{1-w} : ‘항상 나보다 자기 부모님이 먼저지’, ‘내가 이지경인데도 이런 대접밖에 못 받다니 헛살았다.’

F_{1-h} : 부인이 한심스러움. 야속함.

F_{1-w} : 초라함. 다른 환자에게 부끄러움.

Bh_{1-h} : 장모님이 차려준 저녁 식사를 ‘더우니 나중에 먹겠다’고 거절.

Bh_{1-w} : 병원에 찾아온 남편에게 말 걸지 않고 무뚝뚝하게 대함.

E₂ : 장모님의 저녁상을 남편이 거절함. 장모님 앞에서 서로 언성을 높임.

P_{2-h} : ‘더운 걸 덥다고 했을 뿐인데’, ‘장모님이 계시다고 기세가 등등 하구만’, ‘장모님도 끼실 자리가 있고 안 끼실 자리가 있지.’

P_{2-w} : ‘15년 동안 내가 시부모님 얘기만 꺼내면 항상 밥을 안 먹었지’, ‘더워서 밥을 안 먹는다고? 15년을 같이 산 나를 속여?’

F_{2-h} : 장모님에게 불쾌함. 아내에게 부아가

치밂.

F_{2-w} : 초라함을 들킨 부끄러움. 남편이 원망스러움. 배려가 없는 남편에 대한 절망감.

Bh_{2-h} : 장모님 앞에서 더 큰 소리로 아내에게 대꾸함. ‘내가 언제 시부모를 시부모로 생각해본 적이나 있냐’고 아내에게 소리침.

Bh_{2-w} : ‘거짓말 그만하고 가버려라’고 말하며 남편의 등을 떠밂.

E₃ : 아내에 의해 쫓겨나듯 집을 나옴.

P_{3-h} : ‘방패막이를 못한 점은 있지만 내 근본을 거부할 순 없다’, ‘근본을 거부하도록 강요하다니, 나쁜 며느리다.’

P_{3-w} : ‘어떻게 우리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좋다, 한번 해보자’, ‘더 이상 안 참아.’

F_{3-h} : 미안함도 있지만 화가 더 남. 부부관계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의 좌절감. 체념.

F_{3-w} : 분노 감정의 폭발, 배신감, 복수심.

Bh_{3-h} : 고부 사이에서 눈치보게 됨.

Bh_{3-w} : 남편에게 공격하는 이메일을 보냄. 남편과의 모든 일상적인 대화 중단함.

어찌 보면 사소하다고 할 수도 있는 남편의 전화 내용은 아내에게 남편 및 시부모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평가가 강하게 표현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평소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분출되고 급기야 절망감과 배신감 및 복수심의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까지 빚어졌으며 남편에 대한 무시와 냉대의 행동을 방출하게 되었다. 전화에 대한 아내의 반응은 남편에게 처음에는 야속함과 분노 감정을, 사건이 더 진행되면서 좌절감과 체념하는 감정을 유발하였으며 아내와 어머니 집을 오가며 아주 사소한 일로도 눈치를 보는 행동을 지속하게끔 하고 있다. 연속되는 갈등 상황의 한 단면을

살펴본 것이지만 위의 사례는 가족 및 부부의 역할을 바라보는 이면의 불일치한 기대와 믿음이 생활사건에 직면하여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지각과 사고를 유발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이 부부는 매우 냉담한 관계로 급진전하였으며 상호간의 대화가 거의 단절된 상태이다.

논 의

부부 갈등을 인지행동적 개념의 틀을 적용하여 설명해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부부 사례에 인지행동적 척도를 실시하여 요인 별 점수를 일반 부부와 비교하고 인지행동적 요인별로 촉발사건 이후의 부부 갈등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부부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아내의 신체 질병이라는 주요한 부정적 생활사건을 경험하였으며 이와 함께 인지행동적 변인 중 특히 부부신념의 불일치가 일반 참여자들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부부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부정적이면서 파급력이 있는 생활사건에 직면하여 부부관계를 바라보는 신념의 큰 괴리는 부정적 부부 지각을 유발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내는 가장으로서 남편이 경제적 임무를 다해줄 것과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 주기를 기대하였으며 아내로서 자신은 알뜰하게 살림하는 것을 최선으로 믿었다. 반면 남편은 부모님이 근본이며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했다. Beck(1988)은 갈등적인 부부들이 부부의 상호 역할에 대한 기대를 배우자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함을 설명하

였는데, 이 부부도 이와 유사했다. 아내는 배우자 역할에 대한 자신의 신념대로 자신의 역할을 지키기 위해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시어머니의 처사를 견디며 살림을 꾸리는 일에 전념하며 10여년을 살아왔는데, 남편의 사업 실패는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야 한다는 믿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건이었다. 그동안 남편이 시어머니의 개입에도 가장으로서 ‘바람막이’ 역할을 못했던 경험과 중첩되어 남편이 끝내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고를 불러 일으켰다. 부부관계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위배되는 사건 속에서 아내는 남편이 ‘항상’ 아내보다 어머니가 우선이었고 자신의 몸 상태가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남편의 태도는 여전했으며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대가를 치루어야 마땅하다는 비판적 사고가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갈등이 많은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상대배우자의 성격 특성과 같은 변하기 어려운 안정적인 요인으로 귀인하고 의도에 있어서도 고의적이라고 귀인한다는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한다(Baucom 등, 1990). 아내는 어린 시절 엄격한 오파 밑에서 ‘하나라도 잘못하면 전부 잘못하는 것이다’고 하는 완벽주의적인 인지도식을 형성하였고 따라서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부부 역할에 대한 믿음대로 참고 살아온 경향이 강하였다. 참고 억압하였던 그간의 감정이 모두 분출되면서 남편과 시댁에 대한 분노 통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내는 ‘나는 너무 참고 살아왔다, 바보 같이’, ‘내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더 밟으려 할 것이다’와 같은 사고를 기초로 남편에게 감정 및 행동적으로 과잉 대응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그러한 태도는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이기도 하고 이제까지의 대처방식을 변화시켜 보려는 시도이기도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더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에서 인지행동적 치료적 방법을 도입하는 부부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지만(권정혜, 채규만, 2000; 이현숙, 1999; 이창숙, 유영주, 1998) 국내 부부를 대상으로 인지행동적 모델의 검증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의 구체적인 부부 사례에 인지행동적 모델을 적용하여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지행동적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부부를 평가하고 모델에 따라 부부갈등 요인을 설명하였을 때, 보다 경제적으로 부부 문제에 대한 인지행동적 개념화가 가능하다. 둘째, 개인 내에서의 심리 장애에 대한 인지행동적 관점에서는 역기능적 신념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점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아닌 관계에서의 불만족감은 신념 자체보다 관계에 대한 신념에서의 부부 차이 및 괴리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음(김진숙, 권석만, 2009a)을 사례를 통해 검증했다는 점이다. 부부 간의 신념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인지행동적 부부 연구자들에 의해 오래전부터 언급이 되었지만(Beck, 1988; Dattilio & Padesky, 1990; Ellis & Harper, 1961) 측정도구를 통해 이러한 불일치를 확인하고 인지행동적 모델에 적용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 장면에서 있어서도 부부 간 신념의 괴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돕고 이러한 괴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 수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탐색하도록 하여 치료의 진전을 가져오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셋째, 부부 갈등 사례의 유형은 다양하

다. 본 연구에서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한 부부 사례를 가지고 조사를 했지만 몇 가지 갈등 유형에서 모델의 설명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주요한 부정적 지각을 검토하고 부부신념의 불일치를 인식하며 상대방의 ‘부당함’이나 ‘잘못’이라는 선입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자기 내면의 상처받은 감정에 초점을 두어 극단적인 부정적 사고나 행동은 감소시키는(Beck, 1988; Dattilio 등, 1990) 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개입 후의 변화를 인지행동적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함으로써 인지행동적 모델이 부부문제를 잘 설명할 뿐만 아니라 치료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음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정혜 (2000). 지각된 배우자의 비판과 우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697-712.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9.
- 권정혜, 채규만 (2002). 결혼만족도 검사: 사용자 매뉴얼. 서울: 학지사.
- 김윤희, 황순택 (2003). 부모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통제신념과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343-362.
- 김진숙, 권석만 (2007). 부부문제에 대한 인지행동적 모델의 검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미발표.
- 김진숙, 권석만 (2009a). 부부신념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2), 459-473.
- 김진숙, 권석만 (2009b). 한국판 부부감정 척도의 개발. 한국임상심리학회 동계연수회 포스터발표 초록집, 7-8.
- 노은여, 권정혜 (1997). 결혼생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기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I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 41-54.
- 이창숙, 유영주. (1998). 부부갈등 해결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Baucom과 Epstein의 인지-행동적 모델에 기초하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46-71.
- 이현숙. (1999). 인지 행동적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7(1), 5-29.
- Baucom, D. H., & Epstein, N. (1990). *Cognitive-behavioral marital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Beck, A. T. (1988). *Love is never enough*. New York: Guilford Press.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90). Attributions in marriage: Review and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107, 3-33.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91). A contextual model for advancing the study of marital interaction. In G. J. O. Fletcher and F. D. Fincham (Eds.), *Cognition in close relationships*(pp.127-147). Hillsdale, NJ: Erlbaum.
- Bradbury, T. N., Fincham, F. D., Beach, S. R. H., & Nelson, G. M. (1996). Attributions and Behavior in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Marriag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569-576.
- Broderick, J. E. (1981). A method for derivation of areas for assessment in marital relationship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9, 25-34.
- Dattilio, F. M. (1993). Cognitive techniques with couples and families. *The Family Journal*, 1,

- 51-56.
- Dattilio, F. M., & Padesky, C. A. (1990). *Cognitive therapy with couples*.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Exchange.
- Ellis, A., & Harper, R. A., (1961). *A Guide to Successful Marriage*. California: Wilshire Book Company.
- Hanson, W. E., Creswell, J. W., Clark, V. P., Petska. K. S., & Creswell, J. D. (2005). Mixed Methods Research Designs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224-235.
- Jacobson, N. S., Holtzworth-Munroe, A., & Schmalig, K. B. (1989). Marital therapy and spouse involvement in the treatment of depression, agoraphobia, and alcoholis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5-10.
- Mertens, D. M. (2003). Mixed methods and the politics of human research: The transformative-*emancipatory perspective*. In A. Tashakkori & C. Teddlie (Eds.), *Handbook of mixed methods in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pp.135-164). Thousand Oaks, CA: Sage.
- O'Leary, K. D., & Arias, I. (1983). The influence of marital therapy on sexual satisfaction.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9, 171-181.
- O'Leary, K. D., Malone, J., & Tyree, A. (1994). Physical aggression in early marriage: prerelationship and relationship effec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594-602.
- Punch, K. F. (1998). *Introduction to social researc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 Reichardt, C. S., & Cook, T. D. (1979). Beyond qualitative versus quantitative methods. In T. D. Cook & D. S. Reichardt (Ed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in evaluation research* (pp.7-32). Beverly Hills, CA: Sage.
- Snyder, D. K. (1997).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Revised(MSI-R)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

원고접수일 : 2009. 12. 7.

게재결정일 : 2009. 12. 30.

〈Brief Report〉

Application of a Cognitive-Behavioral Model to Marital Conflicts

Jin Sook Kim

Department of Counselling Psychology
Seoul Digital University

Seok Man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a cognitive-behavioral approach for resolving marital problems through the use of real life cases of marital conflicts. The marital problems of one couple were assessed using cognitive-behavioral scales. We examined how the vicious circle of marital conflict was maintained throughout the marriage. Using cognitive-behavioral scales, this couple exhibited a very high frequency of major life events as compared to a control sample of normal married couples. Further, they disagreed considerably with respect to their marital beliefs. In particular, the wife's perceptions of marriage were highly negative. In addition, this couple scored very high regarding the negative feelings about their marriage. As compared to normal married couples, this couple displayed a slightly higher number of negative behaviors and much fewer positive behavio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using a cognitive-behavioral model has explanatory power with respect to marital problem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have been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marital problems, marital beliefs, discrepancy, marital perceptions, marital dissatisfaction, cognitive-behavioral model